

# 保健部 獨立設置運動과 京城女医專設立에 主導役

鄭 求 忠 篇



## 약 력

- 1895. 11. 3 서울출생
- 1912 경성고등보통학교 졸업
- 1921 일본 대판대학 졸업
- 1923~28 조선도립병원 외과과장
- 1928~31 일본대판대학 강사
- 1931 일본대판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 1932 종로에서 외과병원 개업
- 1938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교수
- 1945~48 경성여자의과대학 학장
- 1955 미국 및 구라파 외유(6개월)
- 1959~61 대한의학협회 회장
- 1961~67 대한결핵협회 회장

## ◇ 医学의 선택까지

우리 어린시절만 해도 학교가기전에 한문서당에서 공부하는 때였다. 나도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다가 10살에야 월반하여 소학교에를 들어갔다. 그래서 소학교를 3년밖에 안다니고 졸업했는데, 이듬해 한·일합방이 되었다.

중학교과정은 한성고등보통학교를 들어갔다 가 경성보통보통학교로 옮겨 졸업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내가 가고자하는 대학이 없었다. 그래서 1913년 일본 대판대학으로 유학을 갔다.

그런데 우리집안이 정치적·관료적인면에 많이 작용되었던 것으로 보나, 그당시 전통적인 관료사상으로 보아서도 정치적·관료적 계통의 전공과목을 선택해야 했었던 여건이었다. 그러나 나의 취향이 과학기술의 분야에 성격이 맞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새로운 문물에 접하여 문명이 발달되어감에 따라 기술계통의 인재가 요구될것이 전망되었기 때문에 기술계를 선택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대판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졸업후 일본 교수밑에서 1년간 외과 임상 조교로 있다가 그 때 대판대학에 교수로 와있는 독일인이 있어 다시 그의 통역겸 조교로 1년을 보냈다.

## ◇ 독립병원생활

대학을 졸업하고 2년간의 임상도 했으니 우리나라에 의사들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학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여기에 조금이나마 봉사하고, 아울러 가정에 7순이나 되신 부친이 계서 집안일도 돌볼겸 귀국했는데, 병원은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해 개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차에 조선도립병원(자애병원) 외과과장을 맡게 되었다.

초임지는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병원이었고, 이곳에서 2년을 있다가 해주에 있는 병원으로 전임됐다. 1년후에 다시 평북 초산에 있는 병원으로 갔다.

내가 초산병원에 있을 때 콜레라가 유행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다. 그당시 콜레라가 유행하면 모두 죽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항생제나 의료시설 및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고 겨우 소독제를 치료에 사용하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때 안타깝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석연해 진다.

### ◇나의 길을 찾기까지

병원을 개업해서 자신이 소신껏 일반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더욱 실력을 쌓기위해 연구를 하고, 학위도 취득할겸 1928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대판대학에서 외과결핵에 관한 3년간의 연구 끝에 학위를 취득했다. 이 기간주간에는 연구를 하고 4시이후 야간에는 동포들을 위해 치료를 해주었다. 그당시 일본에는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동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100여명씩 물러왔다.

이렇게 3년동안 공부도 더했고, 학위도 취득했으니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1931년 귀국했다.

귀국하던 이듬해(1932년)에 종로에서 외과병원을 개업하고 의료사업을 하게되었다.

그당시 우리나라 사람으로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외과로는 첫번째가 조한술씨, 두번째가 박창훈씨, 내가 세번째인 것으로 기억된다.

### ◇女子医学專門学校 設立

개업한지 7년 되던 해, 나에게 예기치 않던 뜻있는 계기가 찾아 왔다.

하루는 강원도에서 금광으로 갑부가 된 최창학이라는 사람이 새 자동차를 샀는데, 그 차의 試走에 동승했던 송진우(전동아일보사장) 씨와 이상협(전매일신문사장) 씨가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는데, 송진우씨가 하는 말이 「얼마전에 전라도 부자이며 동경유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 신문사를 하나 하고 싶는데 어떻겠느냐고 자문을 해달라고 해서 신문사는 타산이 안맞으니 다른 사업으로 구상을 해보라고 돌려 보냈는데, 그 사람을 이병원으로 보낼테니 잘 보아 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 전라도 갑부인 김중익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 병원예를 왔다가 그뒤로 계속다녔다.

그러던 차에 그의 딸이 결핵뇌막염으로 죽자 내가 결핵에 관한 연구로 학위를 받은 것을 알고 결핵요양원을 만드는데 써달라고 40만원을 기부했다.

그리고 그후 얼마있다가 하루는 그가 병원에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일본을 가는데 내가 없는 동안에 나의 애들을 잘 좀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다.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李仁(전법무부장관) 씨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김중익이 위급하며 당신에게 유언을 했다」는 내용이였다. 즉시 가보니 그는 이미 유명을 달리한 뒤였는데, 그가 유언하기를 「여자의학전문학교의 설립기금으로 30만원을 기부하니 정구충씨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였다.

그래서 결핵요양원을 설립하라고 기부했던 40만원과 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해달라는 기부금 30원, 그리고 사회사업기금 10만원을 합해 80만을 가지고 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하려고 김탁원(그당시 한성의사회장) 씨와 상의한 결과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허가 관청인

총독부 학무과에 알아보니 여의전을 설립·운영 하려면 2 백만원이 있어야 허가를 해준다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인 교장으로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으며 일본인 교장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김탁원씨와 상의하여 이인씨와 옥선진씨를 시켜 경성의전교장인 좌 정이라는 일본인에게 부탁하여 허가를 받아 달라고 했다. 그러나 역시 자금부족으로 어렵다고 해서 계속 교섭한 끝에 총독부에서 일련의 보조를 해주기로 하고 겨우 허가를 얻었다.

그리하여 종암동 전서울상대자리에 건물을 지어 주고 명륜동 고등상업학교(현고려의대 부속 병원)자리와 바꾸어 사용하기로 하여 병원과 사립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처음에 나는 이 학교 교수가 되었다가 해방이 되자 高南이라는 일본인 학장이 귀국하고 나서 학장자리를 맡게되었다. 이 학교가 후에 首都女子医科大学으로 되었다.

그런데 후에 이 학교를 김종익씨의 아들인 김두수가 경영을 맡아 하게되면서 적자 운영하는 국학대학을 병합하여 우석대학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학교경영에 적자가 누적되어 재단분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문교부에서 관선이사를 선임했고, 수습결과 고려대학교로 병합되었다.

### ◇保健部독립설치운동

해방이 되어 정부가 조직되는데, 처음에는 보건후생부가 하나의 部로 설치되었다가 다시 사회부로 명칭이 바뀌어지면서 보건관계는 사회부 보건국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여기에 의료관계인사들이 모여 보건부의 독립을 숙의하게 되었다. 그래서 보건부독립촉진 위원회를 구성, 조직 위원장에 윤일선씨가 되고 나는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보건부의 독립설치 문제는 정부조직법상의 문제로서 국회입법의 문제였으므로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당시 국회부의장이었던 이영준의원

(전세브란스병원장)등과 긴밀한 연락하에 추진 하였는데 2 년간의 추진결과 보건부가 정부의 部로 다시 독립 설치되었던 것이 기억난다.

### ◇일선에서 물러나서

1948년 여의전학장을 내어놓고 병원일에 전념해 오다가 1973년에 나이도 많고해서 조용히 보낼려고 병원을 그만 두었는데, 나이에 비해 정신과 의지와 건강이 좋아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 앉히기 위해 書道를 하니 마음이 좀 차분히 가라앉았다.

그래서 집필과 서도로 시간을 보냈는데, 1900년 신의학이 들어온 이래 의학계에서 우수한 분들을 선정하여 개개인의 이력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의료계의 개척자」라는 제목으로 게재하고 있는 의협신보에 50여분들의 이력을 집필해주었다.

지금도 의료계의 저명한 인사들에 대한 이력(개인역사)을 하나의 책으로 출간하기 위해 집필하고 있다.

### ◇後學들에게 바람

해방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민간의학은 극히 저급한 상태였다. 이는 그때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적었지만 정치적·사회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에 깊은 연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정치적·사회적으로도 안정되었기 때문에 소신껏 깊은 연구를 할 수 있게되었다고 하겠다.

최근에 해외에서 의학의 첨단을 배워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내에 와서 더욱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의학을 세계의 첨단의학으로 발전시켜주기 바란다.

한편 의학의 발전을 위해 의학자들이 일생을 소신껏 의학 연구에 바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아울러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